

電氣通信 측면에서 본 韓國經濟發達史

金 柄 夏

계명대학교 교수

“ 전기통신의 발달을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결부시켜서 고찰한 것으로 정보통신 1집의 연속개재입니다.

목 차

-
- 제 5 章 電氣通信 近代化期 (1961년~1980년)의 社會經濟
 - 제 1 절 우리나라의 經濟開發計劃의 背景
 - 제 2 절 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과 그 成果
 - 2-1 概觀
 - 2-2 電氣通信
 - 제 3 절 第 2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과 그 成果
 - 3-1 概觀
 - 3-2 通信産業
 - 제 4 절 第 3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과 그 成果
 - 4-1 概觀
 - 4-2 通信産業
 - 제 5 절 第 4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과 그 成果
 - 5-1 概觀
 - 5-2 通信産業
 - 제 6 章 電氣通信現代化時期 (1980年 以後)에 있어서의 社會經濟
 - 제 1 절 第 5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 제 2 절 韓國經濟의 展望과 電氣通信産業

제 5 장 전기통신 근대화기 (1961~1980년) 의 사회 경제

제 1 절 후진국형 경제 개발계획의 배경

자본주의제국(資本主義諸國)에서 경제개발계획이 도입된 것은 2 차대전 후이다. 전후 자본주의 여러나라에 도입·원용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진국형이고, 다른 하나는 후진국형이다. 선진국형은 景氣調整대시 景氣豫測의 기능에 중점을 둔 경기대책적 경제계획이고, 후진국형은 이른바 후진국 개발계획(Development Planning)이다. 선진국형이 경기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기업 및 재장환동의 방향을 계획함에 반하여 후진국형은 고율(高率)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자원배분의 수단으로 경제계획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즉, 정부의 종합경제정책이라는 계획된 의도로서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산업화와 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선진국 경제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된 것은 1962년 이후이지만, 처음으로 종합적 경제개발계획이 작성된 것은 1953년 3월의 「내이산 보고서」로 알려진 「한국경제재건 5개년계획」(1953~1954 — 1957~1958)이고, 다음은 그 해 7월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對韓經濟援助)의 지침으로 한국정부에 건의된 「타스카 3개년 대한원조계획(對韓援助計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계획은 아니었으며, 미국이 대한(對韓)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원조의 배분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재건과 원조경제를 다룬 것이다. 1958

년경에는 원조계획이 일단락되고, 경제안정의 조짐이 보이자 당시 부흥부(復興部) 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입안하였다. 이 계획은 196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60년의 4.19혁명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경제에 관한 최초의 독자적 종합계획으로서 경제성장·투자·생산·고용·국제수지 등 전반에 걸친 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왔고, 그 이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즉, 이 계획안은 1960년을 기준으로 하고 7개년 장기경제전망(長期經濟展望)의 전반계획으로 입안된 것이며, 입안 방식에 있어서나 계량적(計量的)인 목표설정 등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부흥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은 농산물의 수급균형달성(需給均衡達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자본집약적 중점적 투자와 중소기업 분야의 노동집약적 투자의 병행, 수출산업의 육성, 민간자본 축적의 촉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안의 가장 큰 특색은 경제개발 이론에 입각한 계량적 계획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점이다. 즉, 농업과 공업, 자본집약적 공업과 노동집약적 공업의 균형성장 이론에 입각하여 계량적 계획방식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개년 계획안은 거시적 접근(巨視的接近)으로 전체 경제의 성장규모를 밝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전체 경제성장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가장 중요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미시적(微視的)으로 적절하게 발전할 것을 예기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60년부터 196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율을 5.2%로 책정하고 있다.

3개년 계획안은 자립경제 기반조성을 산업

구조의 근대화에 구하고 소득구조와 고용구조(雇傭構造)의 개선, 생산재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구조 개선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국민총생산 성장은 계획기간인 3년 동안 22.5%로 책정하였다. 이것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의 성장 실적을 최소자승(最少自乘)에 의한 경향치(傾向値)로 얻은 성장율인 것이다.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 1차산업의 연평균 성장율은 3.8%, 2차산업은 11.2%, 3차산업은 3.75%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주요품목의 목표년도물량생산계획은 다음과 같다.

쌀은 기준연도보다 13.2%가 증산된 1,878만 1천석으로 되어 있고, 섬유제품은 28%내지 30% 증가시키고, 요소비료(尿素肥料)는 17만 M/T을 생산하며, 시멘트는 73만 7천M/T을 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교통운송(交通運送)은 25% 내지 30% 상승시키고, 전력은 계획기간 중에 13.2%의 성장을 시도하였으며, 수출의 증대에도 노력하여 원조의 감소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산업구조정책은 2차산업 부문의 선도적 성장과 병행하여 농수산업 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균형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광공업 부문은 그 시점(視點)을 생산재 공업과 소비재 공업의 구조개선에 두면서 화학·금속·기계·요업의 증산을 꾀하고 소비재 공업의 성장은 인구증가율이나 소득증가율 이상은 책정하지 않았다. 농업부문은 식량의 자급, 농가경제의 안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이룩하는 방향에서 주식작물(主食作物)과 특용작물(特用作物)의 증산을 계획하였다.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불완전취업의 개선에 치중하는 한편 공업부문의 노동집약적 투자와 자본집약적 투자를 병행하여 투자배분의 조정과 자본이용증대율의 상승으로 농업부문의 비농업부문에로의 흡수와 비농업부문 자체의 고용증대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을 뒷받침할 재정금융정책은 국내자본의 형성에 있어 재정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일반 행정비를 절감시킴으로써 국민총생산에 대한 재정규모를 저하시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활동을 조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금

융여건의 조성에 역점을 두었고,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과도한 통화량 억제주의를 지양하여 통화량의 증가와 구성내용의 조정, 즉 질적 통화정책에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도입·금융·세제상(稅制上)의 특혜조치 등을 구상하고, 수출신장을 위한 지역적 공동시장이나 지역개발 계획의 참가 등 국제적 경제 협력과 경제외교의 강화 등도 강구되었다.

3개년 계획안은 계획기간 중 총 6,393억환(圓)(1955년 불변가격)의 국내 총 자본형성을 계상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은 정부부문 53%, 민간부문 47%로 나누어 정부예산을 통한 자본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안의 자본조달의 특색은 원조의 감축을 예상함으로써 자력에 의한 자본조달에 역점을 둔다. 동시에 필요한 해외재원은 자력에 의한 수출과 외자도입에서 구함으로써 자립경제의 자세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제2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2.1 개관(概觀)과 그 성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천에 옮겨진 종합경제계획이다. 부흥부(復興部)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개발 3개년계획과 네이산 및 타스카의 부흥계획 등은 그 후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었는데, 5·16혁명 이후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졌던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기본 목표를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에 두었다. (註1) 계획수행의 방침으로는 혼합경제체제하에서 자유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민간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고무하는 한편, 정부가 재정·금융·외환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기간산업 및 기타 주요 부문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중점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업소득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 ② 전력·석탄 등 에너지원의 확보
-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 ④ 유희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개발
-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 ⑥ 기술의 진흥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한 1차 5개년계획은 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한 동시적 다부문개발계획(多部門開發計劃)이 아니라, 불균형성장이론을 배경으로 한 전략부문의 중점적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총체적인 경제성장을 미리 상정하고, 이에 따라 생산·투자·고용·수출입을 배분한 경제총량의 기본모형을 마련하고, 개별적 사업계획의 선정과 부문별 생산목표 및 투자를 계획하였다.

1차 5개년 계획에서 국민 총생산의 연평균 목표성장율은 7.1%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8.5%의 성장율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계획 실시 이전의 5년간의 연평균 성장율 5.4%에 비하여 3.1%가 높은 것이다. 계획기간 중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60년의 82.60달러에서 1966년에는 126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산업구조는 기준연도인 1960년에 1차산업 35.2%, 2차산업 19.2%, 3차산업 45.6%였던 것이 1966년에는 1차산업 31.7%, 2차산업 25.7%, 3차산업 42.6%로 바뀌었다. 즉,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감소된 반면에 2차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광공업 등 2차산업의 성장이 주도되어 1차5개년 계획의 높은 성장율을 보여 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2차산업의 성장요인은 계획기간 중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외자도입에 의한 고용의 투자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의한 성장환경의 개선 등에 기인한다. 그리고 3차산업에 대해서 보면,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성취되어 재화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운수·통신·항만·보관 등의 사업이 확대되었고, 사회 간접자본이 확충됨에 따라 높은 성장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계획기간 중에는 무역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계획기간 전에 4천만달러에 미급했던 상품수출이 1966년에는 2억 4,950만달러에 달하였다. 이것은 1960년 실적의 7배 이상의 증가이며, 계획치를 거의 2배 이상 초과달성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 구조에 있어서도 식료품과 비식료 원자재가 대부분 이런 것에서 공산품으로 전환하였다. 즉, 공산품 비중은 1960년의 16%에서 1966년에는 61.5%로 상승하였던 것이다. 공산품 중에서 주요 수출품으로 된 것은 직물·의류·합판·철판·타이어와 기타 고무제품 등이었고, 1차산업 생산물 중에서는 수산물과 생사·철광·중석 등이 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공산품의 외화가득율은 1차산업 생산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주상품 수출의 외화가득율은 1962년의 82.8%에서 1966년의 67.5%로 크게 하락하였다. 무역외수지(貿易外收支)는 1962년, 7500만달러선을 대체로 유지하다가 1966년에 1억 6,800만달러로 2.5배나 급증한 것은 주로 국연군(國聯軍)에 대한 군납 및 월남국(越南國)에 대한 용역 수출의 증가를 받

〔表 5-1〕 産業構造의 実績變動

(單位：%)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次産業	35.2	37.4	33.4	32.5	35.1	32.3	31.7
2次産業	19.2	19.1	21.7	23.0	22.3	24.8	25.7
3次産業	45.6	43.5	44.9	44.5	42.6	42.9	42.6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企劃調整室「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評價報告書」

〈표 5-2〉 電話電信施設 普及 및 利用度(%)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가. 市内電話施設							
(1) 供給率	—	—	75%	74%	77%	49%	51.3%
(2) 自動化率	39%	44.7%	50.1%	52.5%	57.1%	60.9%	64.4%
(3) 100人当 普及率	0.44	0.88	0.59	0.63	0.83	0.95	1.07
나. 市外電話施設							
(1) 供給率	—	—	18	23	25	92.3	93
(2) 100人当 利用率	29	34.6	46.7	66.8	85.9	103.7	120.7
(3) 待期時分	—	—	36	36	29.1	28.2	19
(4) 面單位 通信網 普及率	3.5	37.1	50	58	69	77	88
다. 電信 및 其他 施設							
(1) 電報 100人当 利用率	11.2	11.2	11.5	13	15.8	21	26
(2) 1通 平均 疏通 時分	—	—	95	90	87	85.6	85
(3) 電信電話 官署 普及數	646	81.4	1,022	1,166	1,331	1,487	1,692
(4) 1官署 担当人口	38,691	31,537	25,712	23,576	21,173	19,265	17,252

資料：企劃調整室「第1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評價報告書」1967

영한 것이다.

2.2 통신산업

1차 5개년계획은 소비·서비스업에 의하여 파행적으로 비대해진 3차산업의 비중을 균형적인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한편, 그 내용을 전원개발·운수·통신 등 사회자본 개발에 의한 외부경제의 보강으로 전환코저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의 성장율에 있어서 1962년의 8.2%에서 1963년에는 6.7%로 되었고, 1964년에는 4.0%로서 계획평균 성장율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구조비중은 36.2를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통신산업은 국민경제의 신경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1차 5개년계획에서는 급증하는 통신수요의 충족과 통신용역의 개선·향상을 위한 각종 통신산업 시설을 확충코저 7개 사업이 계획되었다. 즉, 시내전화시설 22만 8,590회선, 시외전화시설 2,818회선, 전신 및 기타 시설 691회선, 전기통신 시험 및 전파관리 시설 488종류, 우체국 신설 및 현업 설비 903국, 통신기술훈련소 신설 1교 및 일

반관리시설 사업과 같은 것이다.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투자의 순조로운 진척으로 통신이용도는 급격히 향상되었다. 우체국 부하인구(負荷人口)가 1960년에는 국당 3만 5,800명이었으나 1966년에는 1만 7,060명으로 개선되었고, 우체국당 부하면적도 141km²에서 57km²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우편 이용량은 1960년의 6.7통에서 1966년에는 13.6통으로 6년간에 2배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인구 100인당 시내전화보급율은 1960년의 0.44에서 1966년에는 1.07로 늘어났으며, 시외전화는 100인당 이용율이 1960년의 29에서 1966년에는 120.7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기시간도 1960년의 36분에서 1966년에는 19분으로 단축되어, 장거리 통화의 소통시간이 얼마나 크게 단축되었는가를 응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면 단위 통신망 보급율은 1960년의 3.5%에서 1966년에는 88%로 상승하여 벽지의 주민들도 문명의 이기(利器)인 통신망의 혜택을 한층 더 잘 받게 되었다.

(주 1) 企劃調整室「第1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評價報告書」1967, 19面 참조

통신시설의 현대화와 병행하여 실시된 전기통신기술요원의 훈련실적은 1965년의 57명을 위시하여 1965년에 269명, 1966년에는 38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의 전기통신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의 기여도는 말할 것도 없고, 경영의 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1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던 1962년 우리나라의 통신기계공업 시설은 재래식인 자석식 교환기(磁石式交換機)를 겨우 생산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필요한 통신기기는 거의 외국수입품에 의존하였으나, 목표연도인 1966년 이후에는 자동식교환기(自動式交換機)(E. M. D.)와 반송단국장치(搬送端局裝置) 등을 제외하고는 전선·각종 케이블·공전식교환기(共電式交換機) 등의 국산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3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그 성과

3.1 개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년~1971년)은 1차계획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여건과 시장기구를 다각적으로 반영한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그 규모는 1차계획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다. 1차계획이 공업여건의 조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2차 5개년 계획은 공업화 기반의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2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두어 다음과 같은 세부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한다.
- ② 화학·철강 및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생산을 배가한다.
- ③ 7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수입대체를 촉진

진하여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의 기반을 굳힌다.

- ④ 고용을 증대하는 한편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구팽창을 억제한다.
- ⑤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특히 영농(營農)을 다각화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에 주력한다.

- ⑥ 과학 및 경영기술을 진흥하고 인적 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제2차연도인 1968년에 수정되었는데, 조정계획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이 보완되었다.

- ① 국민 총생산은 원계획 7%보다 3%가 더 높은 연평균 10%의 성장율을 계획하였으며, 1971년의 국민 총생산은 1965년 불변가격으로 1조 5,084 억으로 추정되었다.
- ②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가증가율은 1971년에 2%선에 억제할 것이며, 따라서 추정되는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6,500원에 이른다.
- ③ 제철·석유화학·금속 및 기계공업의 개발 육성으로 공업 고도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광공업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율은 연평균 각각 20.2% 및 10.2%로 책정되어 원계획의 10.7% 및 6.6%를 훨씬 상회하여 수정계획되고 있다.
- ④ 1971년의 수출목표는 약 15억달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상품수출은 10억달러로, 이는 원계획의 5억 5,000달러에 비하여 82%나 초과 조정되고 있다.
- ⑤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전천후농업(全天候農業)의 기반구축은 계속 추구될 것이며,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통하여 지역간·산업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급진전되었다. 특히 1965년에 전혀 생산되지 않았던 화학섬유계·소모사 등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합판·정유·자동차·기계 등의 제조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1967년의 2차산업의 성장율은 20.2%였고, 목표연도인 1971년의 성장율은 17.3%였다. 즉, 계획기간 중 연평균 19.9%의 높은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차산업은 1967년에 14.6%에서 1971년에는 9.8%로 되어 연평균 12.7%의 성장율을 보여주고

〈表 5-3〉 2次計劃期間의 國民總生産 및 産業構造 (1975年 不變價格)

	1967	1968	1969	1970	1971	平均
1. GNP (10억원)	4,669	5,196	5,911	6,363	6,962	-
2. 成長率 (%)	6.6	11.3	13.8	7.6	9.4	9.7
1次産業	△5.9	1.3	10.5	△1.4	3.7	1.6
2次産業	20.2	23.4	19.2	19.6	17.3	19.9
3次産業	14.6	15.3	14.2	9.5	9.8	12.7
3. 産業構造						
1次産業	37.5	34.2	33.2	30.4	28.8	-
2次産業	15.1	16.7	17.5	19.5	20.9	-
3次産業	47.4	49.1	49.3	50.1	50.3	-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1

고, 1차산업은 연평균 1.6%의 성장율을 보여 주었음에 대하여 2차산업은 거의 20%에 가까운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의 성장율은 1967년의 6.6%에서 1971년에는 9.4%로 상승하였고, 연평균 9.7%라는 높은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차 5개년 계획은 개발전략을 대외지향적 공업화에 목표를 두고 수출의 촉진, 관세인하, 수입제한의 완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재의 수출증대와 중간재의 수입대체에 주력함으로써 공업구조의 고도화에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자도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수출이 크게 신장하여 국민경제의 수출의존율은 1차계획기간의 평균 8%에서 2차계획기간 중에는 평균 15.8%로서 거의 2배로 증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전력·비료·섬유·시멘트 등 기초산업과 내수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2차 계획 기간에는 합성섬유·석유화학·전기기기 등 수출산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수출은 연평균 38%나 증대되었고, 1971년에는 상품수출이 10억달러의 고지를 돌파하였다. 이것은 1967년의 3억2천만달러에 비하면 3배 이상 신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출주도의 공업화는 산업 구조면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광공업이 비중은 1967년의 15.1%에서 1971년에는 20.9%로 커졌다. 1차산업은 같은

기간에 있어서 37.5%에서 28.8%로 축소되었음에 대하여 2차산업은 5% 이상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업화의 결과 산업구조가 달라지고, 수출품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위한 투자수요의 격증과 투자재의 높은 해외의존율을 초래하였다. 즉, 국민경제의 수입의존율이 1차계획 기간보다 2차 계획 기간에 더욱 높아졌고, 무역수지상의 적자폭도 크게 확대되었다. 2차 5개년 계획에서 추진된 높은 수출신장은 고도성장과 공업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편 투자재의 수입의존의 증대로 무역구조면에서 만성적인 불균형을 계속해 온 것이다. 즉, 무역수지는 1966년의 4억 6,600만달러에서 1971년에는 13억 2,700만달러로 적자규모가 커졌으며, 수입의존율은 16.7%에서 26.3%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수출증가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수입을 크게 유발하였던 것이다.

2차 5개년 기간 중 국민저축율과 해외저축율은 1965년 불변가격으로 각각 평균 15.6%와 15.3%를 기록하였다. 저축의 내용을 보면 국민저축 중 지금까지 저수준을 맴돌던 민간저축이 계획기간 중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저축환경이 점차 조성되어 다소 상승하였고, 해외저축에 있어서는 과거 우리나라 투자재원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미국의 지원·원조 및 잉여농산물에 의한 증여규모(贈與規模)는 크게 감소되

고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초과하는 수입절대액의 증가로 차관의 비중이 점차 커졌던 것이다.

3.2 통신산업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통신시설이 급히 확충되었음은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통신산업의 다른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1차 계획 기간에 있어서 통신산업의 뚜렷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통신수요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통신산업의 발달이 다른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므로 시설 투자를 늘리는 한편 통신수단의 국산화 촉진과 장기공급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신수요의 증대에 대처하여 기간 중 통신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에 약 590억원을 책정하였다. 특히 전화수요의 증대를 감안하여 도시 및 농어촌 전화에 통신부문 총액의 63%인 약 37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전화 47만 1천회선을 증설함으로써 전화 대수를 1965년 인구 1천명당 9대로부터 26대로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증진에 따라 국제간 장거리 전화를 기간 중 140회선 증설하고, 시외전화의 즉시화(即時化)를 하기 위하여 도시간 장거리 전화 4,289회선, 농어촌간 장거리 전화 4,483회선 및 방송중계선(放送中繼線) 12회선 등도 아울러 시설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획기간 중 통신투자의 33%에 해당하는 195억 원을 투입하며, 그 밖에 약 14억원을 투입하여 국제전신 5.9회선, 텔렉스 1,342대 등을 증설하는 한편 11억원을 투입하여 112개의 우체국과 60개의 분국을 설치하여 산업의 근대화와 능률향상을 지원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토록 하였다. (註1).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통상우편물 접수 상황을 보면 1962년에 접수된 총통수는 1억 6,250만통이었으나 1971년에는 5억 5,089만통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증가경향은 2차 계획기간 중에 특히 현저하였다. 소포우편물 접수상황의 예를 보면, 1967년에 접수된 총수는 268만 1,369였는데, 1971년에는 422만 4,930이었다. 국내 전신취급수(電信取級數)를 보더라도 1967년의 3,228만 2,628건에서 1971년에는 4,682만 7,30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전화가입자수는 1967년의 33만 9,280명에서 1971년에는 56만 3,129명으로 증가하였다(註2).

이 시기에 있어서 통신산업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계화의 확충일 것이다. 통신산업의 현대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통신의 기계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체신부에서는 1966년부터 기계화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고, 1970년 5월에는 기계화의 제1단계인 실내 방송시설(Indoor Conveyer System)의 가동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정국에서는 우편물 처리 기계화 계획을 포함하는 우정사업 기계화계획(1969년~1973년)을 1차적으로 세우고 우정사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체신업부의 기계화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다.

제4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그 성과

4.1 概 觀

1,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우리도 잘살 수 있고 부강할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제3차

(註1) 경제계획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6, 97면 참조

(註2)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1972, 참조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년~1976년)은 1, 2차개발 계획의 성과와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하면서 번영의 70년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짜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계획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기본정신은 첫째로,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추구하여 추구하고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온 국민에게 널리 보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둘째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수지의 개선 및 주곡의 자급을 실현함으로써 자립적 경제구조를 이룩하며, 세째로 4대강 유역개발·도로망의 대폭적인 확충 등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개발의 균형을 기하려 하였다. 이것을 요약하면 제3차 5개년 계획은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 및 중화학공업의 건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3차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제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식량을 증산하여 주곡을 자급하고, 농어민 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제정리 및 기계화 등을 촉진한다.
- ② 농어촌의 보건 및 문화시설을 충실화하고 농어촌 전화 및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한다.
- ③ 수출을 목표연도에 목표액 35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국제수지를 개선한다.
- ④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공업의 고도화를 기한다.
- ⑤ 과학기술의 급속한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인력을 개발하여 고용을 최대한으로 증

대한다.

- ⑥ 전력·교통·보관·통신 등 사회기초시설의 균형된 발전을 기한다.
- ⑦ 4대강 유역 개발을 비롯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수출공업단지 등 개발 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공업과 인구를 적정히 분산한다.
- ⑧ 주택과 위생시설 및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기한다. (註1)

3차 5개년 계획은 지속적인 공업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질적 충실화에 치중했던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자본재의 수입의존을 지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립화 기반을 공고히함과 아울러 농업개발에도 치중하는 성장과 안정 및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3차 계획에서는 2차계획에서 성취된 연평균 성장율 9.7%보다도 낮은 연평균 8.6%의 성장율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율의 책정은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장율을 달성하기 위한 총 투자액은 기준연도인 1970년의 6,676억원에서 1976년에는 1조6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국내저축이 1970년에 4,315억원이었는데, 1976년에는 9,135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였다. 한편, 해외저축은 1970년의 2,361억원에서 1976년에는 1,742억

〈表 5-4〉 3次計劃期間의 國民總生産 및 産業構造(1975年 不變價格)

	1972	1973	1974	1975	1976	平均
1. GNP(10억원)	7,366	8,463	9,141	9,793	11,276	-
2. 成長率(%)	5.8	14.9	8.0	7.1	15.1	10.2
1次産業	2.0	6.3	6.7	5.3	10.7	6.2
2次産業	12.9	28.6	15.2	12.6	21.5	18.2
3次産業	5.0	13.6	5.0	5.1	13.7	8.5
3. 産業構造						
1次産業	27.8	25.7	25.4	24.9	24.0	-
2次産業	22.3	25.0	26.6	28.0	29.5	-
3次産業	49.9	49.3	48.0	47.1	46.5	-

資料：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1

원으로 축소시켜 투자재원의 해외 의존성을 줄이도록 하였다.

산업별 성장과 구조는 3차 계획기간 중 농수산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서, 산업간의 균형적 발전을 하도록 시도하였다. 계획기간 중 농수산부문의 연평균 성장율은 4.5%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광공업부문은 연평균 13%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한편 제철·기계·석유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의 건설의 공업화의 고도화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사회간접 및 기타 부문은 연평균 8.5%의 성장율을 목표로 하였지만, 전력·수송·건설 부문은 12.3%의 성장을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산업구조는 목표연도인 1976년에 가서 1차산업 22.4%, 2차산업은 27.9%, 3차산업은 49.7%로 조정, 그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는 국제적인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지만, 개발계획은 큰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성장율은 1972년의 5.8%에서 1976년에는 15.1%로 상승하여 연평균 10.2%를 기록하였다. 1차산업의 성장율도 제 2차 5개년 계획기간의 연평균 1.6%에 대하여 연평균 6.2%로 신장하였으며, 2차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있어서 연평균 18.2%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제 2차 계획 기간 중의 19.9%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나, 여전히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어서 3차 계획의 높은 성장율의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산업구조면에 있어서도 1차산업은 1972년의 27.8%에서 1976년에는 24%로 개선되었다. 이것은 계획의 22.4%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지만, 2차산업의 경우는 1.6%가 더 높은 29.5%를 성취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3차산업의 경우도 계획보다 호전된 46.5%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광공업의 비중이 커진 것은 중화학공업 육성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결과 중화학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연관산업 및 계열산업의 생산도 촉진되어 공업구조가 크게 고도화한 데 고도화의 요

인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 중에서 중화학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의 35.6%에서 1976년에는 40.2%로 증대되었고, 경공업부문의 비중은 64.4%에서 59.8%로 떨어졌다.

제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특히 철강·수송용기계·전자·조선 등의 중공업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중화학공업화율을 크게 높이고, 자본재의 해외의존율을 경감시키는 한편, 수출은 7.2배나 팽창되어 무역의 불균형을 다소 시정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투자의 자립도를 높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무역 적자가 1971년의 13억 2,600만달러에서 1976년에는 10억 5,800만달러로 감소되었고, 투자의 해외저축의존율도 1971년의 42.5%에서 1976년에는 9.5%로 크게 감소되었다.

4.2 통신산업

1960년대에 있어서 통신시설의 확장과 기술 및 서비스 향상은 계속 높은 성장을 보여 왔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무역의 신장, 생활수준의 향상 등 세 요인에 의하여 통신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5개년계획 기간중 시내전화 50만회선, 시외전화 약 2만회선, 국제통신 262회선, 전신 6,540회선 및 우정시설 개선 등 시설확충을 시도하게 되었다.

국제통신은 무역량의 증대 및 국제정세의 신속한 변화 등에 따른 국제통신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계획기간 중 142회선의 국제전화를 증설하고 국제전신은 120회선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 3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국제통신 방식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한·미 및 한·일간은 자동화하고 기타 국간은 반자동화(半自動化)하여 국제통신의 신속화를 기하며, 우편물 분류 및 반송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계획기간동안 통신부문에 총 1,494억 7,200만원을 투입할 것을 책정하였다.

1976년은 제 3차 계획을 매듭짓는 해이며, 통

(註 1) 대한민국 정부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1, 참조

신사업이 장비면이나 기술면에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한 해이기도 하였다. 전기통신 부문에 1,157억 4,500만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가입전화시설은 24만 7,400회선, 장거리전화시설 5,634회선, 국제통신 154회선을 증설하여 면모를 일변시킨 것은 1976년이었다. 그리고 3차계획 기간에 있어서는 새마을 운동과 병행하여 2,000리동(里, 洞)에 새마을 통신을 증설함으로써 총 12,429리동(里, 洞)에 대한 시설 확대로 목표의 67%가 달성되었고, 112개 도서(島嶼)에 무선통신을 증설한 것도 노동(都·農)의 격차해소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제5절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그 성과

5-1 概 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년~1981년)은 주요 목표를 자력성장구조의 실현과 함께 기술혁신을 통한 공업구조의 고도화에 두었다. 종래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기조가 고도성장, 즉, 물량적 확대 또는 대외지향적 성격이 강하였음에 대하여 제4차 계획은 성장능력 또는 형평의 원칙을 계획이념으로 내세우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자력성장 구조의 확립과 경제운영 능력의 향상 또는 사회개발이라는 계획 전략을 통한다는 것이다.

자력성장 구조의 확립이라는 전략은 목표년도에 있어서 92% 수준의 투자재원을 자력으로 조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수지의 확대 균형이라든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비교우위 확립 등은 전략적인 방법으로 내세워지고 있었다.

자력성장 구조의 실현과 기술혁신을 통한 공업구조의 고도화는 결국 산업용기계·조선·전자 등을 성장산업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인 노동집약형 중화학 공업에 역점을 두게 마련이었다. 이는 단순 노동집약 산업에 주력한 종래의 개발전략과는 다른 것이다. 더우기 제4차 계획에서는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순한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경쟁 메카니즘에 기반을 둔 능력과 효율의 제고(提高)를 통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술집약 산업에의 중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기술집약 산업이 국제경쟁력에 있어서도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이다.

최근의 국제경제 동향은 국제간에 자본 이동과 기술지식의 보급이 급속하여, 공업국간의 산업구조가 동질화 됨으로써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진 공업국과의 경쟁도 가중화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섬유·신발·합판 등의 경공업에서부터 전자·조선·기계 등의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노동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성장산업이 개발도상국에 밀려 사양산업화(斜陽産業化)의 우려가 짙어지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수량적인 수입제한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외전략적면에서 국내산업의 구조 개편 등 새로운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4차 계획은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시키려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총체적인 성장은 연평균 9.2%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종래의 계획에 비하여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안정성장을 추구하면서 기술집약적 공업구조의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도 2차산업의 성장율이 높아져 계획기간 중 연평균 9.8%의 신장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구조면에 있어서의 성과는 1차산업은 1977년에 있어서 22.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1년에는 15.6%로 개선되었다. 2차산업의 경우 1977년의 30.6%에서 1981년에는 35.5%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의 공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3차산업은 47.2%에서 48.9%의 높은 비율을 시현하고 있다.

공업화의 성장추세에 따라서 제4차 계획에

(表 5~5) 4次計劃期間의 國民總生産 및 産業構造 (1975年不變價格)

	1977	1978	1979	1980	1980*	平均
1. GNP (10억원)	12,432	13,877	14,759	13,843	14,820	-
2. 成長率 (%)	10.3	11.6	6.4	△6.2	7.1	5.8
1次産業	2.1	△4.0	6.7	△21.9	23.0	1.2
2次産業	14.3	19.9	9.4	△1.1	6.8	9.8
3次産業	11.9	13.5	4.1	△3.4	2.0	5.6
3. 産業構造						
1次産業	22.2	19.1	19.2	15.9	15.6	
2次産業	30.6	32.9	33.8	35.7	35.5	
3次産業	47.2	48.0	47.0	48.4	48.9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1

* 표는 삼상추계임.

서는 수출신장과 자본재의 자급율을 제고시켜, 무역흑자로의 전환을 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제 4 차 계획기간의 진행 과정에서 1977 년과 1978년의 호경기를 고비로 하여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오히려 부(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것은 선진국에 있어서의 신보호무역주의(新保護貿易主義)와 불경기 등 국제경제 환경의 악화 때문이지만,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기반의 취약성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註1)

5-2 通信産業

제 4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은 기술집약적 공업구조의 증진과 사회개발에 특징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성격은 통신산업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전기통신 산업은 기술의 집약을 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의 선행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통신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소득의 증대와 국제교류의 증진에 따른 통신수요의 증가에 대처하여 정부는 통신시설의 개량 및 확충과 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국내 통신망의 통합조정에 의한 전국 통신망 구성이라는 도농간(都農間)의 균형된 통신보급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提高), 국제통신망의 확충·개선에 의한 수출증대에 기여, 통신기술 개발에 의한 기술의 자립화 촉진은 제 4 차 계획 기간 중에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경영의 내실화 촉진과 관리개선(管理改善)에 의한 능률의 향상, 기능인력의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도 확충·보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이 어떻게 양적(量的) 팽창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1975년말의 일반 우체국 수는 919개였으나 1977년에는 930개로 증가하였고, 1979년에는 961개국, 1981년에는 1035개국으로 급증하였다. 전신전화국의 경우도 1975년의 35개국에서 1977년에는 49개국으로 증가하였고, 1981년에는 5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우편물의 접수량은 1973년에 60만 5,832 었으나, 1977년에는 75만 2,398로 증가하였고, 1981년에는 109만 3,886으로 증가하였다. 이것과 발을 맞추어 기능인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예컨대, 체신부가 수여한 무선종사자 면허취득 상

(註1) 李榮勳 「經濟計劃과 工業化過程」, 「立鳳金民彩博士 華回紀念 韓國經濟의 分析」 PP.38~41 참조

황을 보면, 전파통신기사 1급의 경우, 1973년에는 325명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1977년에는 394명으로 증가하였고, 1981년에는 495명으로 100명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전파통신기사 2급 면허 취득자는 1973년에 1,047명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1977년에는 1,549명이 되었으며, 1981년에는 2,238명으로서 같은 4년동안에 무려 689명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전파통신기능사 2급 면허 취득자의 경우는 1973년의 4,046명에서 1977년에는 1만 905명으로 증가하였고, 1981년에는 1만 3,41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註2)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1980년과 1981년 사이에 크게 나타났다. 제 4 차 개발 계획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이다. 주요 통신지표(通信指標)를 보면, 가입전화 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신시설인 전자식교환시설(電子式交換施設) 23만 4,000회선 등 총 67만 4,000회선을 증설하여 1981년말 전화 가입자 수는 326만 3,000회선에 달하여 인구 백명당 가입자는 8.4로 증대하였다. 1980년말의 가입자 수 270만5,000명에 비하면 무려 55만 8,000명이나 증가하고 있다. 전화의 자동화 비율도 1980년의 84.5%에서 1981년에는 87%로 증가하였으며, 공중전화도 1980년의 5만 6,921대에서 1981년에는 6만 2,025대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이 이 무렵에 급진전하였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거리 전화 시설도 1980년말의 7만 6,749회선에서 1981년말에는 8만 8,571회선으로 늘어났으며, D. D. D 시설도 137 지역에서 1981년에는 147지역 2만 6,230회선으로 늘어나 30.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제전신전화회선도 1,354회선으로 늘어났으며, TELEX 가입자수도 1980년의 4,318명에서 1981년에는 5,201명으로 증가하였다.

공중전기통신사업(公衆電氣通信事業)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기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전기통신기술을 연구하며, 실용화할 한국전

기통신공사(韓國電氣通信公社)의 발족을 추진하여 1982년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1981년에는 또한 자동기기운용(自動機器運用) 확대의 일환으로 자동소인기(自動消印機) · 우편물파속기(郵便物把速機) 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우편물 운송의 능률화를 위하여 수노권 우편물 운송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시민의 저축 및 송금상의 편익과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우편대체사무(郵便代替事務)에 예금계산(預金計産)을 신설하였다.

1981년에는 전화적체(電話積滯) 현상을 완화하고, 특히 가입전화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電자식 23만 4,000회선과 기계식 39만 4,000회선, 수동식 4만 6,000회선 등을 준공하여 가입전화 시설은 모두 349만 1,000회선에 이르게 되었으며, 가입자수는 326만을 돌파하게 되었던 것이다. 장거리통신도 1981년 중 마이크로 웨이브 2,020회선, 동축반송 7,080회선, 케이블 반송 1,770회선, PCM시설 6,000회선 등을 설치하였으며, 장거리 자동전화시설 기계식 6,852회선을 준공하였다. 그리고 시외전화 교환시설 15만 5,000회선의 도입을 추진하여 1981년말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전자식 TELEX 1만 회선을 준공하였다.

(註2)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1983, 참조

제 6 장 전기통신 현대화 시기(1980년 이후) 에 있어서의 사회 경제

제 1 편 제 5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제 5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1982년~ 1986년)은 제 4 차 계획 기간 중에 성취한 기술집약적 공업구조의 증진을 승화시켜 비교우위의 공업구조를 실현시킨다는 전제하에 짜여졌다. 즉, 안정과 능률 및 균형의 기초 밑에서 경제안정기반을 정착시키고 저축증대와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며, 능률향상을 위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비교우위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주력함으로써, 수출주도의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있어서 공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모든 산업에 걸쳐서 개발 또는 보완의 필요가 있는 핵심적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하거나, 혹은 생산성이 낮아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산업의 애로를 타개하도록 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공업화사회의 선진화를 추구하자는 데 있다. (註1)

선진 공업구조의 실현을 위해 전자공업·정밀화학·기계공업·시스템 산업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시키고, 기존의 수출지향적 경공업과 중공업을 보완하여 수출산업화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업화 성장을 가속화하고 구조의 고도화를 극

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이 기간에 있어서 기계공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17.6%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공업부문의 핵심기술개발에는 반도체(半導體)·컴퓨터·통신기계 등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의 기술집약산업의 중점적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 5 차 5 개년 계획에서 상품수출은 1986년에 가서 53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 중에서 기계공업제품의 수출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31.5%가 증가되고, 총 수출액에 대한 기계제품의 비중은 1986년에 32.6%가 될 것으로 계획됨으로써 1986년 이후로는 기계공업이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여 성장하는 공업화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제 5 차 계획의 공업화 전략은 기계공업뿐만 아니라 화공품·금속제품은 물론,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의 수출도 크게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그리하여 1986년의 공업화율은 34%가 될 것이며, 공업전체에 대한 생산비중은 경공업이 43%, 화학공업이 25%, 기계공업이 23%로 되며,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있어서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의 1,506달러에서 1986년에는 2,170달러로 증대하고, 투자율은 31%에서 32.4%로 증가하며, 국민저축율은 21.2%에서 29.6%로 급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크게 개선되어 1차산업은 16.9%에서 14.8%로 되고, 2차산업은 30.7%에서 35%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註1) 同書 42面 참조

제2절 한국 경제의 전망 과 전기통신산업

한국경제는 5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의 수행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공업화에도 성공하여 산업구조도 크게 개선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7.9%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차 계획기간 중에는 9.7%, 3차 계획에서는 10.2%, 제4차 계획 기간 중에는 5.7%를 성취하였다. 그동안 석유파동을 비롯한 국제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하는 동시에 해외저축을 늘리고 공업화성장을 통한 자립적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한국경제는 지난 20여년간 공업화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공업화에 일단 성공하였다. 그리고, 1,2차 계획에서는 섬유·전력·시멘트·정유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했으나 3,4차 계획에서는 철강·전자·조선·기계공업이 선도산업으로 등장하였다. 4차 계획에서는 기술집약적 공업구조의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었는데, 제5차 개발계획에서는 그것이 구체화하여 전자두뇌산업·정밀화학·정밀기계공업이 선도산업적 역할을 하면서 비교우위의 선진공업 구조의 실현에 힘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괄목할만한 진척을 보이면서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성공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책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국방의 결합이란 점에서도 타당성을 지닌 것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최고 2만 톤급의 선박 밖에 만들지 못하던 우리나라는 30만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세계 제2의 조선국으로서 전세계 조선 능력의 11%를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다. 조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도 급속히 발전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수출국이 될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여

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국제수지의 적자폭을 축소시키면서 수출을 증대하고, 고도공업화사회를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내저축율이 다소 높아 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투자와 저축간의 불균형은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선도산업의 농업부문과의 연관효과가 미흡함으로써 산업간의 불균형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적 인플레이션 문제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로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가라앉기 시작하여 우리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물가의 불안정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고 과잉유동성 흡수에도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4차 계획기에 착수된 사회개발은 5차 계획 기간에 본격화하고 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수습의 토착화에 의한 사회적 안정의 提高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우정사업의 현대화도 추진되어 서비스 산업으로서 공익성이 提高되었고, 경영개선에 의하여 企業性도 동시적으로 성취되어 왔다. 우정은 통신산업을 통괄하는 것이므로 통신산업의 신경기능을 잘 살려야 한국경제가 마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보아, 우정의 한국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전기통신산업은 통신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의 통신산업이 근대 문명의 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전기통신산업은 통신산업의 총아요, 한국근대화의 척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어서도 전기통신산업의 시설확충과 기술개발에 계속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한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또 계속되어야 한다. 전기통신 기술의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설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다면 국제적 수준에서 항상 낙후될 면이 못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전기통신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은 작업의 기계화와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타부처와의 협조로 가로명(街路名)의 재조정, 지번(地番)의 합리적 정리 등이 추구되어야 하겠고, 우편물함(郵便物函)을 집집마다 적소에 규격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우편물 배달의 기동성은 提高되어야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의 회선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선에 달할 시기도 그리 멀지 않다고 내다볼 때 전기통신시설은 거기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즉각 설치될 수 있어야 하고 양질의 통화매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용 어 해 설)

Circuit Switching (회선 교환) : 회선교환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데이터 전송망은 상호간의 연결 배선이 미리 결정된 라인으로 구성된다. 회선교환에서 경로는 망의 각 연결점에서 재검토된다. 경로는 부하나 유동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스스로 전송자와 번지 사이의 가장 좋은 경로를 결성하고 필요한 부분 상호간을 연결한다. 스위칭,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Connection Procedure (접속 절차) : 망이나 회로에서 두 요소 사이의 연결은 대화의 형태로 약속을 변화시켜 할 수 있는데, 이는 링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 Access Procedure, Network

Data Bank (데이터 뱅크) : 데이터 구조 신뢰성과 논리성은 그 적용이 독립적이고 쉽게 접속, 또는 이용할 수 있으며 친밀성 기준에 일치한다.

- 데이터 뱅크의 예
 - ENEIDE : 경제적, 산업적 데이터 뱅크
 - DEMAIR : 항공여행정보
 - FSCULAPE : 의학의 역사처리
 - SYGESCO : 학교관리
 - 데이터 뱅크 소프트웨어의 예
 - IDS (Honeywell)
 - IMS / VS - DLI (IBM)
 - SOCRATE (C11)
 - MISTIT (Gamma)
- ⇨ 소프트웨어

Digital Transmission (디지털 전송) :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신호전송을 말한다. 이 중 각각은 단지 유한개수의 불연속의 값(discontinuous values)이라 가정한다. 대부분 2진 부호가 사용된다. 이 경우에 각 데이터는 2진화 시스템에서 코드화된다. ⇨ 모뎀, 망, 애널로그 전송